

C r e a t e

N e W a v e

K o c c a !

대한민국  
영토,  
콘텐츠로  
넓힌다!

Create NeWave Kocca

Content Industry Trend of USA

미국 콘텐츠 산업동향

2017년 20호

Kocca  
한국콘텐츠진흥원

# 미국 콘텐츠산업동향

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

2017년 20호

구분(장르)	제 목	Key Word
심층이슈	▶ <b>【2017미국 박스오피스 현황 : 프랜차이즈 피로증】</b> ⇒ 2017년 여름 시즌 미국 영화시장의 흥행성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	영화

2017. 10. 27.

한국콘텐츠진흥원

미국 비즈니스센터

## 주간 심층이슈

## 『미국 박스오피스 현황 : 프랜차이즈 피로증』

## ◎ 작성취지

- 2017년 여름 시즌 미국 영화시장의 흥행성적을 살펴보고,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

## ◎ 작성순서

- 들어가기
- 미국 영화시장 흥행현황 (2017년 1월 ~ 8월)
- 2017년 여름 박스오피스 흥행성적 정리
- 정리와 시사점

## 1. 들어가기

- 통상 북미 박스오피스 여름시즌은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부터 9월 첫 주 노동절 연휴까지로 분류되며, 할리우드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간임
- 이 기간에는 방학과 휴가 등을 보내며 오락거리를 찾는 관객들을 위해 이른바 블록버스터라 불리는 대형 영화들이 대거 개봉해왔음
- 올해에도 이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여름시즌을 겨냥해 개봉됐지만, 이들 중 흥행에 성공한 대형 블록버스터/프랜차이즈/속편으로는 <원더우먼(Wonder Woman)>, <스파이더맨: 홈커밍(Spider Man: Homecoming)>, <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Vol.2(Guardians of the Galaxy Vol.2)> 3편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김

- 오히려 저예산으로 제작된 공포영화 <겟 아웃(Get Out)>, <애나벨: 크리에이션(Annabelle: Creation)> 등과 여름 시즌을 비켜 개봉한 전쟁영화 <덩케르크(Dunkirk)>, 하이스트 영화 <베이비 드라이버(Baby Driver)>, 아마존 제작 독립영화 <더 빅 Sick> 등이 흥행해 주목받았음
- 매년 여름,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티켓판매량으로 프랜차이즈의 저력과 수요를 증명했던 <트랜스포머> 시리즈의 신작 <트랜스포머: 최후의 기사 Transformers: The Last Knight>와 <캐리비안의 해적: 죽은 자는 말이 없다(Pirates of Caribbean: Dead Man Tel No Tale)> 등 전형적인 여름 블록버스터는 기대와 달리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함
-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계획하며 개봉한 <미이라(The Mummy)>, <발레리안: 천개행성의 도시(Valerian and the City of a Thousand Planets)>, <킹 아서: 검의 전설(King Arthur: Legend of the Sword)> 등도 흥행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
- 이러한 영화의 흥행실패는 북미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할리우드와 관련 업계는 2017년 여름을 일종의 ‘분수령’으로 지목하고 있음

## 2. 미국 영화시장 흥행현황 (2017년 1월 ~ 8월)

- 2017년 8월 21일 기준 박스오피스모조닷컴(boxofficemojo.com)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, 총 429편의 영화가 개봉됐으며 전체 박스오피스 흥행수입은 약 64억 2,406만 달러, 편당 평균수입은 약 1,497만 달러로 나타남
- 최고 흥행작은 1위를 기록한 <미녀와 야수(Beauty and the Beast)>로, 누적 흥행수입이 5억 401만 달러로 집계됨
- <미녀와 야수>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해 제작된 영화로, 미국 및 전 세계에서 개봉했음
- 6월 2일 개봉한 워너브라더스의 <원더우먼> 역시 개봉 첫 주부터 높은 흥행수익을 기록. 총 4억 4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2위로 기록
- 그 뒤로 <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.2>가 3억 8,919만 달러(5월 5일 개봉)를 기록하며 3위로, <스파이더맨: 홈커밍>이 3억 1,405만 달러(7월 7일 개봉)로 4위, <슈퍼배드 3(Despicable Me 3)>가 2억 5,174만 달러(6월 30일 개봉)를 벌어들이며 5위를 차지



[그림 1] 미녀와 야수 [출처 : IMDb]

- 6위에는 <로건(Logan)>이 2억 2,627만 달러(3월 3일 개봉), 7위는 <분노의 질주 8: 더 익스트림(The Fate of the Furious)>가 2억 2,576만 달러(4월 14일 개봉), 8위는 <레고 배트맨 무비(The LEGO Batman Movie)>가 1억 7,575만 달러(2월 10일 개봉)
- 이어 9위에는 <갯 아웃>이 1억 7,548만 달러(2월 24일 개봉), 10위는 애니메이션 <보스 베이비(The Boss Baby)>가 1억 7,490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기록
- 10위권 내 프랜차이즈 영화가 총 7편이 진입하며, 프랜차이즈와 속편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 함을 입증
- 하지만 흥행작으로 기대했던 <캐리비안의 해적: 죽은 자는 말이 없다>(11위), <혹성탈출: 종의 전쟁(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)>(15위), <트랜스포머: 최후의 기사>(17위), <에일리언: 커버넌트(Alien: Covenant)>(24위) 등 대형 블록버스터들의 흥행결과는 저조
- 이에 10위권 내 7편의 프랜차이즈 영화가 진입한 것은 프랜차이즈와 속편의 제작 분량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이 필요

Rank	Movie Title (click to view)	Studio Artsploitati	Total Gross / Theaters	Opening / Theaters	Open	Close		
1	<b>Beauty and the Beast (2017)</b>	BV	\$504,014,165	4,210	\$174,750,616	4,210	3/17	7/13
2	<b>Wonder Woman</b>	WB	\$404,008,376	4,165	\$103,251,471	4,165	6/2	-
3	<b>Guardians of the Galaxy Vol. 2</b>	BV	\$389,192,395	4,347	\$146,510,104	4,347	5/5	-
4	<b>Spider-Man: Homecoming</b>	Sony	\$314,051,381	4,348	\$117,027,503	4,348	7/7	-
5	<b>Despicable Me 3</b>	Uni.	\$251,740,230	4,535	\$72,434,025	4,529	6/30	-
6	<b>Logan</b>	Fox	\$226,277,068	4,071	\$88,411,916	4,071	3/3	7/13
7	<b>The Fate of the Furious</b>	Uni.	\$225,764,765	4,329	\$98,786,705	4,310	4/14	7/13
8	<b>The LEGO Batman Movie</b>	WB	\$175,750,384	4,088	\$53,003,468	4,088	2/10	6/8
9	<b>Get Out</b>	Uni.	\$175,484,140	3,143	\$33,377,060	2,781	2/24	6/11
10	<b>The Boss Baby</b>	Fox	\$174,902,812	3,829	\$50,198,902	3,773	3/31	-

[표 1] 미국 박스오피스 흥행순위(2017년 1월 ~ 8월 21일) [출처: 박스오피스모조닷컴]

- 이른바 ‘프랜차이즈 피로증(Franchise Fatigue)’으로 대변되는 프랜차이즈 및 속편에 대한 관객의 흥미 저하는 기존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흥행실패에 더해,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며 만들어진 영화들의 흥행실패에도 영향을 미침
- 이를 테면 <미이라>, <파워레인저스: 더 비기닝>, <다크 타워(The Dark Tower)>, <발레리안: 천개행성의 도시> <킹 아더: 검의 전설> 등이 있으며, 이들 모두 전체 순위 20위권 밖으로 랭크됨
- 한편, 2017년 박스오피스는 1/4분기 기준 전년도 대비 11.8% 증가한 2억 5,033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고, 2/4분기 들어서는 전년 대비 0.1% 하락하여 2억 7,98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둠
- 2017년 박스오피스 계절별 분석을 살펴보면, 특히 여름 시즌의 흥행 실패가 더욱 두드러짐
- 2017년 겨울 시즌은 1월 1일을 시작으로 3월 첫 주 목요일까지로 분류되고, 2017년 겨울 시즌 총 수입은 11억 3,562만 달러로, 전년도 동기간 대비 0.8% 하락했음
- 3월 첫 주 금요일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직전까지를 이르는 봄 시즌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.6% 소폭 반등해 18억 7,707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음
- 반면, 9월 첫째 주 마감되는 여름 시즌은 8월말 기준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

해 무려 23.4% 하락한 34억 1,137만 달러로 집계됨. 마감 2주를 남겨두고, 다른 기대작의 개봉이 예정되지 않아 큰 변동 없이 마무리 될 전망

### 3. 2017년 여름 박스오피스 흥행성적 정리

#### 1) 2017년 여름 박스오피스 분석

- 2017년 여름시즌의 개봉작 수는 122편으로,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, 여름 박스오피스 총 수입은 전년대비 23.4% 하락한 34억 1,137만 달러로 나타남
- 편당 평균수입은 1,632만 달러로 크게 하락
- 이러한 결과는 어느 영화 한 편이 크게 흥행하지 못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, 전반적으로 이 기간 개봉한 영화들이 모두 저조한 흥행수입을 거둠으로써 생긴 결과로 평가됨

**Winter - Spring - Summer - Fall - Holiday**  
 Note: The Summer Season is defined as the first Friday in May through Labor Day Weekend.

Year	Total Gross	Change	Days in Season	Avg.	Movies	Avg.	Avg. Drop*	#1 Movie	Gross	% of Total
2017	\$3,411.4	-23.4%	122	\$28.0	209	\$16.3	-51.8%	Wonder Woman	\$404.0	11.8%
2016	\$4,452.1	-0.2%	122	\$36.5	250	\$17.8	-50.7%	Finding Dory	\$486.3	10.9%
2015	\$4,460.9	+9.9%	129	\$34.6	252	\$17.7	-50.5%	Jurassic World	\$652.3	14.6%
2014	\$4,058.0	-16.3%	122	\$33.3	230	\$17.6	-47.6%	Guardians of the Galaxy	\$333.2	8.2%
2013	\$4,851.1	+12.7%	122	\$39.8	232	\$20.9	-49.4%	Iron Man 3	\$409.0	8.4%
2012	\$4,305.2	-0.5%	122	\$35.3	224	\$19.2	-49.5%	The Avengers	\$623.4	14.5%
2011	\$4,326.7	+2.6%	122	\$35.5	203	\$21.3	-50.6%	Harry Potter / Deathly Hallows (P2)	\$381.0	8.8%

[표 2] 연도별 여름 시즌 박스오피스 수입 비교 (2011년 ~ 2017년) [출처: 박스오피스모조닷컴]

- [표2]를 살펴보면, 매년 여름 평균 수입은 대체적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둠
- 또한 해당 기간 1위를 차지한 영화들은 2015년 <쥬라기 월드(Jurassic World)>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체 수입에서 8-10% 비중을 차지
- 반면 예년과 달리 2017년의 경우 40억 달러를 넘지 못했으며, 1위를 차지한 <원더 우먼>의 수익 역시 4억 400만 달러로 예년과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됨

Rank	Movie Title (click to view)	Studio Artsplottati ↓	Total Gross / Theaters	Opening / Theaters	Open	Close
1	Wonder Woman	WB	\$404,008,376	4,165 \$103,251,471	4,165	6/2
2	Guardians of the Galaxy Vol. 2	BV	\$389,192,395	4,347 \$146,510,104	4,347	5/5
3	Spider-Man: Homecoming	Sony	\$314,051,381	4,348 \$117,027,503	4,348	7/7
4	Despicable Me 3	Uni.	\$251,740,230	4,535 \$72,434,025	4,529	6/30
5	Pirates of the Caribbean: Dead Men Tell No Tales	BV	\$171,809,932	4,276 \$62,983,253	4,276	5/26
6	Dunkirk	WB	\$165,508,079	4,014 \$50,513,488	3,720	7/21
7	Cars 3	BV	\$148,790,767	4,256 \$53,688,680	4,256	6/16
8	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	Fox	\$140,922,203	4,100 \$56,262,929	4,022	7/14
9	Transformers: The Last Knight	Par.	\$130,098,855	4,132 \$44,680,073	4,069	6/21
10	Girls Trip	Uni.	\$103,986,175	2,648 \$31,201,920	2,591	7/21

[표 3] 2017년 여름 박스오피스 상위 10위권 [출처: 박스오피스모조닷컴]

- 2017년 여름 박스오피스 순위에는 <덩케르크>, <걸즈 트립(Girls Trip)>을 제외한 8편 모두 프랜차이즈 영화로 나타남
- 2011년 이후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만큼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‘프랜차이즈 영화 제작’에 대한 스튜디오의 입장과 개봉 전략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음

#### 2) 스튜디오별 흥행작과 실패작

다음은 <버라이어티>가 정리한 2017년 여름 스튜디오별 흥행성공작과 흥행실패작임

##### ● 유니버설 스튜디오

-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올 여름 <미이라>, <슈퍼배드3>, <걸즈 트립>을 개봉
- 이 가운데 흥행 영화로는 <걸즈 트립>이 유일
- 고전 몬스터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<다크 유니버스(Dark Universe)>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<미이라>는 3억 4,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
- 오리지널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, 배우 톰 크루즈까지 섭외했지만 흥행수입은 기대에 부흥하지 못함
- <슈퍼배드3>의 경우 미국내 흥행수익은 예상보다 적었지만,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선전함





[그림 2] 미이라 [출처 : IMDb]

● 워너브라더스

- 워너브라더스는 올 여름 가장 많은 영화를 개봉했고, 그 가운데 흥행작이 많았음
- <덩케르크>, <원더우먼>, <킹 아더: 검의 전설>, <더 하우스(The House)>, <애너벨: 크리에이션>, <에브리씽, 에브리씽(Everything, Everything)>을 개봉
- 이 가운데 <킹 아더: 검의 전설>을 제외한 나머지 개봉작들이 예상을 웃도는 흥행수입을 거두었으며, <원더우먼>은 여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
-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제작되는 DC유니버스의 프랜차이즈 영화들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였음

● 디즈니

- 디즈니가 올 여름 개봉한 영화는 모두 프랜차이즈로,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기반이 된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음
- 디즈니의 여름 개봉작으로는 <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Vol.2>, <캐리비안의 해적: 죽은 자는 말이 없다>, <카3>임
- <버라이어티>는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성적 부진, 특히 전편들에 대한 충성도가

높은 <카3>의 흥행부진 등을 두고 “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유통기한에 다다랐다”고 평가

● 소니 픽처스 스튜디오

- 소니 픽처스 스튜디오는 <스파이더맨: 홈커밍>과 <러프나이트(Rough Night)>, <다크 타워>, <이모지 무비>, <베이비 드라이버>를 개봉
- 이 가운데 <스파이더맨: 홈커밍>과 <베이비 드라이버>가 흥행에 성공하였음

● 20세기 폭스

- 20세기 폭스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 6기업 중에서 가장 난항인 여름을 보냈음
- <스내치드(Snatched)>와 <다이어리 오브 Wimpy Kid: The Long Haul>, <에일리언: 커버넌트>, <캡틴 언더팬츠(Captain Underpants)>, <혹성탈출: 종의 전쟁>을 개봉
- 20세기 폭스의 개봉작 중 <혹성탈출: 종의 전쟁>이 가장 호평을 받았으며, 유일한 흥행작이라 평가됨

● 파라마운트

- 파라마운트는 <버라이어티>가 집계한 6개 스튜디오의 여름 성적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
- 올 여름 파라마운트가 개봉한 영화는 <베이워치(Baywatch)>와 <트랜스포머: 최후의 기사> 2편으로, 이 두 편 모두 기대보다 못한 흥행성적을 거둠
- 특히 <베이워치>와 <트랜스포머: 최후의 기사>는 그 동안 할리우드가 준비해온 여름 블록버스터의 전형이기에, 이러한 결과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제작 및 개봉 방식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



[그림 3] 베이워치 [출처 : IMDb]

### 3) 박스오피스에 대한 미디어의 평가와 패인 분석

- 많은 미디어들의 평가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꼽히는 흥행 실패의 원인은 ‘예측불가능(unpredictable)’으로, 관객의 성향과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
- 예년과 비교해 낮아진 수입으로 인한 혹평이 대부분이며, 2017년 여름을 기점으로 그 동안 고수해온 스튜디오의 안전한 제작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
- <가디언(Guardian)>은 “박스오피스 대학살: 할리우드는 어떻게 이번 여름에 망했나(Box office massacre: how Hollywood flopped this summer)”, <블룸버그(Bloomberg)>는 “지옥에서 온 할리우드의 여름(Hollywood’s Summer From Hell)” 등 냉정하고 가혹한 분석을 내놓음
- <가디언>에 따르면, 올 여름 박스오피스의 흥행성적과 관련해 가장 먼저 실패를 드러낸 분야는 극장업계로, 미국 내 최대 극장체인인 AMC 극장 체인은 여름 동안 기업가치가 27% 하락했으며, 티켓 판매 또한 미 전역에서 10.8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- AMC 극장 체인 외 4개 극장체인의 수입도 총 1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

- 이 같은 흥행 저조가 지속될 경우, 2017년 연간 티켓판매수입은 약 112억 달러로 마무리 될 것이라 전망
- 이는 지난해의 113억 7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15% 하락한 수치임
- <버라이어티>는 박스오피스 분석가인 제프 북(Jeff Bock)의 말을 인용해 “속편과 프랜차이즈에 과도하게 의지해온 할리우드가 바닥을 드러냈다”고 비판
- 또한 극장 이외에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최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붐과 플랫폼 과잉 현상이 극장 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정리
- 최근 아마존, 넷플릭스, 훌루, 유튜브, 애플에 이어 모바일 서비스 회사인 AT&T 마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프로덕션 플랫폼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플랫폼 서비스와 프로덕션 모두 과잉 경쟁시대에 돌입
- <가디언>과 <블룸버그>는 티켓 소비자(관객)가 여러가지 자원을 활용해 영화를 구매할 수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고 영리한 마케팅으로 대응하지 못한 스튜디오들을 지적
- 이 두 매체는 특히 ‘로튼토마토 효과(Rotten Tomatoes Effect)’를 인용해 스튜디오에서는 평점 애그리게이션 사이트의 비중을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
- ‘로튼토마토 효과’는 2015년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로, 소비자들이 실제로 영화평점을 모아서 산출하는 로튼토마토, IMDb, 메타크리틱 등 평점 애그리게이션 사이트의 평점 평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
- <와이어드>는 소셜 미디어 리서치 회사인 피지올로지(Fizziology)의 벤 칼슨 공동창업자의 말을 인용해, “로튼토마토 점수가 나쁜 경우의 영향력이 더 크고, 30점 이하로 평가됐다면, 실제 관객동원력에서는 300%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”고 전함

#### 4. 정리와 시사점

- 2017년 여름 박스오피스는 최근 5년간의 수치와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
- 전년 대비 12% 하락했고, 이 기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총수입도 전년대비 1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이는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는 스튜디오는 물론 상영하는 극장산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
- 이러한 흥행실패의 패인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“예측불가능”으로, 관객의 성향 변화와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한 반응이 필요하다고 지적
- 특히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평점 종합 사이트라는 견해도 있음
- 여느 여름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대거 개봉해 상위권에 랭크됐지만, 총 수입은 20% 이상 하락해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해 관객이 느끼는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됨
-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피로증은 새로운 의견이 아니지만, 그럼에도 관객의 수요가 있기에 제작한다는 스튜디오의 입장에 변화가 필요
- 개봉과 광고 홍보 전략 등 전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

#### ● 미국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●

- 김철민 소장 : +1-323-935-5001 / cmkim@kocca.kr
- 엘리홍 과장 : +1-323-935-5001 / ehong@kocca.kr
- 권순형 주임 : +1-323-935-5001 / gavin@kocca.kr